



믿음의 모자이크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일카 베이가

2022-2023년
여선교회 프로그램
자료 책자

믿음의 모자이크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일카 베이가

2022-2023년
여선교회 프로그램
자료 책자

믿음의 모자이크: 2022 - 2023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프로그램 자료 책자 © 2022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United Women in Faith)에 모든 권리가 있음.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상업 목적이 아닌 소그룹 참가자들을 위하여서 프로그램 책자의 내용을 복사할 수 있는 허가를 준다. 복사하여 사용할 때, *믿음의 모자이크: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2022 - 2023년 여성교회 프로그램 자료 책자*의 저작권을 밝혀 주기 바란다. 그 외의 사용에 대하여서는 프라비나 발라순다람(Praveena Balasundaram)에게 연락 바람: PBalasundaram@uwfaith.org.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성경은 표준 새번역을 사용함 © 1989 대한 성서 공회의 허락을 받아 사용함.

편집 책임: 프라비나 발라순다람

저자: 일카 베이가: Ilka Vega

옮긴이: 한영은

신학적 길잡이: 노라 커닝햄 Nora Cunningham

검토 위원: 다니 부아씨에르Dionne P. Boissière, 매리언 버르기스Maryann Verghese

편집자: 미셸 오카바야시 Michelle Okabayashi

예술 책임: 레이 그랜트 Rae Grant

표지 디자인: 낸시 메시어Nancy Messier

뒤 표지 사진: 일카 베이가 Ilka Vega

페이지 디자인 : 낸시 리오나르도 Nancy Leonard

미국에서 인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선교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여성들이 개체 여성교회와 글로벌 공동체에 영감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형성, 지도자 개발, 창의적인 친교,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서로 연결되고 성장하는 것을 추구한다.

비전

세상의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하여 믿음, 소망과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목적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고, 교회의 글로벌 사역에 참여하며,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여성 공동체를 이룬다.



연합
여성교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셨다.

차례

여는 말	7
프로그램 개요	10
저자에 대하여	11
제1기 2022년 가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3
• 2022년 9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5
• 2022년 10월: 하나님은 불의에 관해 중립이 아니다	23
• 2022년 11월, 범사 감사 헌금: 생명을 주는 창조와 변화	31
제2기 2022년 겨울: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가겠습니까?	41
• 2022년 12월: 부르심에 응답하다	43
• 2023년 1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가는 우리의 여정	53
• 2023년 2월: 우리의 몸이 경건함을 다시 알게 되다	59
제3기 2023년 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입니까?	67
• 2023년 3월: 씨앗을 키우다	69
• 2023년 4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77
• 2023년 5월: 용감한 믿음의 여성	85
제4기 2023년 여름: 우리가 우리 형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정의와 자유의 사역을 통하여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93
• 2023년 6월: 실천하는 믿음은 억압적 구조를 무너뜨린다	95
• 2023년 7월: 함께 치유하다	101
• 2023년 8월: 자유를 향하여 공동체에서 함께하다	109
용어 사전	118
참고 문헌	120
2023년 선교 약정 헌금 예배: 예수님은 누구 십니까-나의 돈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21
2023년 기도와 절제의 날: 우리는 믿기 때문에	129





여는 말

이 프로그램 자료 책자의 목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들과 깊은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새로운 이름은 United Women in Faith인데 (한국어 이름은 그대로임-웁긴이), 감리교회의 여성교회는 시작부터 함께 실천 행동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변두리 사람들과 함께하는 연대감을 가져왔다.

우리는 우리 식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찌면 온 몸으로 믿고 후원하던 기관들과 맺었던 관계들이 깨지게 만드는 변화와 다양한 도전의 시간에 살고 있다.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우리 각자가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각각 사랑받고, 각자 그리스도의 몸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모자이크는 보기만 해도 작은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큰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가 한 부분이 되어서 서로서로를 돌보는 우리의 역할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 하다

이 프로그램 자료는 마가복음 8:27 - 30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믿음의 여성 공동체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고 찾아보기 위한 초대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 전체를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배움의 여정에 영감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 정의, 그리고 자매 간의 사랑 (Sisterhood)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것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물음은 믿음의 사람들 즉, 메시아의 사람들로써 이 세상에서 정의와 자유를 위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깊이 묵상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초대이다.

예수께서 이 중요한 질문으로 그의 제자들을 도전했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 자신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함께 씨름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들을 바꾸고 변두리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는 변화를 추구한다. 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 프로그램 자료에서 각 사본기에 중점을 두는 네 가지 주요 질문에 초점을 둘 것이다. 질문들은 참가자들이 성경 말씀을 비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자기들의 대답과 질문들을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공동체란 각자의 책임이 있고, 필요할 때에는 새로 만들어지고 또한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만들고 다시 세우고 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정의의 일을 하게 된다. 우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은 버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억압하는 제도를 깨뜨리는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서 서로 상호관계로 연결되어서 일하게 된다. 이사야서 66:13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하여 준다. 실천하는 사랑과 정의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저항과 자유에 대한 이런 개념을 우리의 언어로 좀 더 강화하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 자료 책자에서는 하나님을 여성형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한국어에는 큰 차이가

없다.-웁긴이) 이 프로그램 자료의 영어 책자에서는 하나님을 “He/ His”라고 하지 않고, 중성적 표현이나 “하나님 자신 (Godself)”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도 될 것이다.

영혼-돌보기

우리가 사랑과 자유 그리고 공동체 만들기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에 기반을 두고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감정과 정신 건강에 필요한 영혼- 돌보기 연습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여야 한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전 인격적으로 영혼-돌보기를 연습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돌보고 섬기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영혼-돌보기 연습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더 자주 함께하시도록 초대하게 된다.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비슷하게, 이 프로그램 자료에서 우리는 영혼-돌보기가 자신-돌보기와 함께 영적으로 활기를 되찾도록 접근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자료에서는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자매 사랑의 중요한 가치들을 함께 배우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포용성을 중요시 하고, 다세대 간의 연결, 또한 정의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으로 변화되고, 반인종차별주의를 배우고, 잘못된 배운 것들을 버리고, 실천 등을 통하여 우리의 결단이 계속되고 새로워져서 우리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준다.

프로그램 자료 사용 안내

이 프로그램 자료에는 12개의 매달 프로그램이 4분기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분기마다 주제가 있다. 각 기는 우리들이 믿음과, 정체성과, 관계성에 대한 질문들을 좀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매 달 프로그램마다, 우리는 성경 본문과, 활동 사항들을 탐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실천 행동으로 옮겨지게 도움을 줄 것이다.

매 달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과 만나고, 성경 본문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서, 의미를 찾고 토의하도록 도와 준다.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매달의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에, 미리 읽어보아서 필요한 것들을 프로그램 전에 준비하기 바란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지도력을 경험하고 배우게 한다.

각 프로그램의 소요 시간은 40 분 - 60 분 정도이고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된다.

- 환영 및 목적
- 살아있는 말씀
- 이야기 나누기
- 직접 해보며 배우는 시간
- 마무리 및 집에서 실천하기

매 달의 프로그램에는 또한 일인칭 동영상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달마다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에 갖는 활동사항들은 그 달에 실천하게 되어있다. 이런 활동사항들은 의도적으로 영적 성장, 영혼-돌보기, 공동체 만들기, 그리고 정의 찾기와 같은 주제에 중점을 두도록 나누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 자료는 한 주일에 한가지 주제의 활동사항을 실천하도록 고안 되어 있고 참가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주간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 사항들을 전체 참가자들에게 알려줄 것을 제안한다. 한 명이 한달 동안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한 명이 한 주간 씩 돌아가면서 알려줄 수도 있다.

선교 약정헌금 예배와 기도와 절제의 날 예배는 프로그램 책자 뒤에 나와 있다.

프로그램 설계와 필요한 것들

참가자들과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활동 시간과 대화를 나누기에 편한 공간을 각각 다른 곳에 정하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 설계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참가자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게 원형으로 둘러 앉도록 의자 배치를 추천한다. 모이는 장소는 개체 교회나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방이나, 누군가의 집, 혹은 참가자들이 편안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달의 프로그램은 동영상을 보여줄 화면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느 달에는 활동과 공작 시간에 쓸 테이블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매달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준비물:

- 인터넷 연결
- 동영상을 틀어줄 프로젝터와 화면
- 같이 읽을 성경책들
- 복사물
- 가위 여러 개
- 펜 여러 개
- 흰 컴퓨터용 종이
-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자연에 대한 그림들, 편안하게 해 줄 배경 소리들, 부드러운 천이나 천과 비슷한 것들

참가자들이 매달 모임 때마다 가지고 와야 할 준비물:

- 내용이나 생각들을 적을 수 있는 노트북이나 저널
- 성경
- 펜이나 연필

온라인으로 활용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해야 할 때, 가능하다면 우리는 컴퓨터, 화면 혹은 프로젝터, 스피커, 그리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한다. 줌이나 그 밖의 무료 소프트웨어는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사용할 수 있다. 소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해야 할 때에, 온라인 참가자들은 줌의 브레이크아웃 룸 기능으로 그룹을 나누어서 진행하면 된다. 참가자들이 줌이나 비디오 콜과 같은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는, 진행자들이 의논하여서 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매달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준비물 내용은 각 프로그램 전에 참가자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필요한 미디어 링크나 다른 자료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에 그 날의 활동사항을 확인하면서 참가자들이 그 활동사항을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지 알아보는 것을 제안한다. 그렇지만, 참가자 그룹은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 자료들이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세계관을 서로 나누고, 우리들이 배우고 실천하는 사역들에 대하여 공동체로서 서로서로가 필요한 믿음의 모자이크가 되어 가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주의: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자료 책자를 원하는 사람은 uwfaith.mn.co에 들어가서 이 책자를 구입하면 된다. 혹은 이미 Mighty Networks에 가입을 하였다면, Mighty Networks의 자료부 Resources section로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 책자를 구입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탐구할 때에, 각 사분기는 각각 다른 질문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제1기 | 2022년 가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 2022년 9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 2022년 10월: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중립이 아니다
- 2022년 11월: 범사 감사 헌금: 생명을 주는 창조와 변화

제2기 | 2022년 겨울: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_____로 가겠습니까?

- 2022년 12월: 부르심에 응답하다
- 2023년 1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가는 우리의 여정
- 2023년 2월: 우리의 경건한 몸을 다시 알게 되다

제3기 | 2023년 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입니까?

- 2023년 3월: 씨앗을 키우다
- 2023년 4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 2023년 5월: 용감한 믿음의 여성

제4기 | 2023년 여름: 우리가 우리 형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정의와 자유의 사역을 통하여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 2023년 6월: 실천하는 믿음은 억압적 구조를 무너뜨린다
- 2023년 7월: 같이 치유하다
- 2023년 8월: 자유를 향하여 공동체에서 함께하다



저자에 대하여

일카 베이가

멕시코의 씨우다드, 후아레스(Ciudad, Juárez), 텍사스 엘 파소 국경지대의 사람으로 일카 베이가는 지속 가능성, 문화, 그리고 사회 정의 (Sustainability, Culture, and Social Justice)라는 논문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제네바 대학교에서 혁신, 인간 개발, 그리고 지속 가능성 Innovation, Human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로 과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있는 중이다. 베이가는 미국, 멕시코, 그리고 스위스에서 이민, 인종 정의,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비영리단체에서 10년 넘게 일하여 왔다. 베이가는 엘 파소의 리디아 패터슨 기관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와 함께 변호와 공동체 조직에 대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녀는 현재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인종 정의 정책부서를 섬기고 있다. 베이가는 음악, 믿음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 그리고 사회적 환경적 정의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자의 개인적 인사

나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유산과 리디아 패터슨의 고등학교 때부터 나를 멘토하고 사랑과 사회와 환경 정의라는 언어로 나를 양육해온 모든 담대하고 영감을 주는 여성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정에서 내가 더 잘 되라고 나를 언제나 불러주고 도전해 온 많은 여성들에게, 감리교 여성교회가 새로운 장을 여는 이 때에, 나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과 정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자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공동체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자기들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여성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랑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창조 안에서 드러나 보이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배운 것을 버리고 (Unlearning), 다시 배우고 (Relearning),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언제나 쉬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매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정의, 그리고 자유의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라비나 발라순다람과 교정 팀이 해준 모든 것들과 후원, 그리고 나의 엄마 미리암 베이가와 할머니, 수잔나 베이가에게 그들의 사랑과 영적 인도에 대하여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식구가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3년 기도와 절제의 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인종 정의 현장

프로그램 전체 보기

올해의 기도와 절제의 날 헌금 예배는 전국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인종 정의 사역을 후원하게 된다. 여러분의 헌금은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송수관의 관행을 중단하고 여성교회 회원들이 개체 여성교회나, 지방회, 연회 등 모든 여성교회의 단계에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여성교회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 온 인정 정의 현장 사역 두 가지를 모두 후원한다.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가 교회와 세상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 온 인종 정의에 대한 후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들의 선배 어머니들은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인종 정의 현장의 저자가 되었다. 2023년에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그 믿음을 계속한다.

준비

이 예배를 대면으로 준비하든지, 혹은 온 라인으로 만나든지, 혹은 하이브리드로 모임을 갖든지, 이 프로그램이 시작하기전에,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미리 읽고, 필요한 준비물들을 준비하고,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진행자들을 미리 정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인종 정의 역사를 시대별로 잘 보여주는 타임라인 (인종 정의 역사-옮긴이)을 미리 찾아서 알아 보고 자기의 그룹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두 세 가지 사건을 타임라인에서 골라본다.

그 사건들의 배경을 미리 알아보고 “정의를 위하여 부름 받음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활동 시간에 배운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한다.

준비물 그리고 자료들 (온라인 혹은 대면 용):

- 성경
- 다음 쪽 목록에 있는 찬양을 틀어줄 기기
- 유튜브 동영상과 찬양 노래를 틀을 수 있는 기기
- 인종 정의의 타임라인 (온라인에 나와 있음: umwmissionresources.org/downloads/RJTimeline.pdf)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인종 정의 동영상 (온라인에 나와 있음: tinyurl.com/c68pku58)
- 인종 정의 현장 (온라인 영어 자료: uwfaith.org/what-we-do/serve-and-advocate/racial-justice)
온라인 한국어 자료: umwmissionresources.org/downloads/RJ_Charter_KO_2022.pdf)

예배 제단

대면으로 모임 경우에, 어린이들과 중 고등 학생들에 대하여 기쁨과 특별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는 물건들을 함께 준비해 볼 것을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어린이 장난감이나 어린이 성경책 등). 대면으로 모이든, 온라인으로 모이든, 인종 정의 타임라인 가운데서 필요한 내용을 프린트 한 별지 혹은 성경 본문 말씀 복사한 것들과 같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준비물들을 여기에 추가로 준비하면 좋다.

시간

프로그램에 각 순서마다 걸리는 시간을 적어 놓은 것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자기 그룹이 필요한대로 프로그램의 흐름에 따라 조절하면 된다.

환영 | 5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중요성에 대하여 아주 분명히 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방해가 된다면서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 제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꾸짖으셨다 (마가복음 10:13 - 16; 마태복음 19:13 - 15; 누가복음 18:15 - 17).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린이들이 위험한 길로 몰리고, 훌륭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좁혀서 형사 사법 제도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여는 찬양

“하나님의 아이 (Child of God)” -Mark Miller¹

이 찬양은 여러가지 편곡들이 있는데, 작곡자가 직접 부르는 찬양도 포함되어 있다.

유튜브: youtu.be/MYZ79kSC6_I

프로그램 소개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송수관”은 어린이들과 청소년-특히 백인이 아닌 어린이들과 청소년- 들을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고 형사 사법제도 앞에 서게 만드는 정책과 관행들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쓰인다. 많은 기관들, 학교, 경찰서, 사법 제도, 감옥, 교도소 등이 이런 해가 되는 일에 동조한다. 집단 감금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가두는 것 - 율킨이)과 유색 인종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다른 방법들과 같이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송수관은 학교에 주둔하는 경찰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 징벌에서 미성년자를 성인 취급하는 편견, 즉 흑인 소녀들을 나이보다 많게 성인같이 취급하고, 그리고 (성인으로 취급하여서-율킨이) 정말 그들이 보호가 필요한 것 보다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은 인종차별 등의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들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²

이는 인종 차별의 깊고 보기 흉한 본성인데, 인종 차별에서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 우리 가운데 아주 어린 아이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인권 사무소의 교육부 보고에 따르면 인종적으로 한 쪽에 불공평한 차이를 보이는 징계는 미취학 연령같이 어린 나이도 있다고 한다. 흑인 학생들은 미취학 아동의 입학률이 18.2%인데, 유아반에서 정학 처분을 받는 학생들은 38.2%나 된다.³

인종 정의 사역이란 모든 믿음의 여성들에게는 믿음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이 된다.

묵상 그리고 상상 하기 | 20 분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이사야서 61:1 - 3a (표준 새 번역)

혹 전에 언젠가 하기 싫은 마음에서 한숨을 쉬면서, “아니, 이게 바로 그거라고?” 말하던 자신을 발견해 보았던 적은 없었나?

하지만, 종종,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바꾸지 못하는 폭력,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폭력의 구조나 조직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배워 왔다.

대량 구금, 구조적인 인종 차별,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송수관 등이 그 예이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

집단 구금:

-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인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다.
- 1970년대 에서부터 구금 비율이 극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 그 이후 40년 동안, 구금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섯 배 (500%)나 늘어났다.
- 최근에는, 이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구치소, 감옥소, 소년원 시설과 이민 강제 구치소 등에 감금되어 있다.⁴

누가복음 4:18 - 19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서 두루마리에서 읽으신다. 예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예언자들과 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보다 너무나 다른 세상 -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 나오는 세상,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희년”을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우리가 바로 전에 읽은 말씀에서 초대하는 것 같이 우리는 거룩한 상상과 놀라움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거룩한 자유 가운데서 함께 살아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들이 집단 구금이라는 체제를 없앨 수 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떤 선물들을 받게 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하나 하나의 어린이로 대우해 준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떤 선물들을 받게 될 수 있을까?

만일 우리들이 정의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하여 좀더 복음에 기초를 둔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더 이상 체벌의 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신 피해를 예방하고 상처를 고치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돌보아 주고, 진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처를 입힌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까? 우리들이 모두 함께 성숙해져서, 아무도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아무도 우리 가운데 비참할 정도로 자기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도움 말: 대면으로 만나거나 온라인으로 만나거나 혹은 모이는 수가 많은 경우에는, 소 그룹으로 나누어서 (대략 한 그룹에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 위의 토의와 앞으로 할 활동을 모두 소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모인 그룹이 위의 물음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을 조금 준다. 그리고 나서 참가자들에게 옆 사람과 자기들의 생각을 간단하게 서로 나누어 보게 한다.

이야기 나눈 후에는, 전체 참가자에게 물어 본다. 이 물음이 우리 그룹에게는 상상하기에 쉬운 물음인가? 아니면 어려운 물음인가?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상상하는 세상에 우리가 온전하게 갈 수 없다면, 우리들이 한 발짝 가깝게 발을 앞으로 내어 디딜 수는 있을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정기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참가자들이 생각해 보게 한다.

- 자기들의 인종과 민족성에 기반을 둔 범죄 정의 시스템은 누가 인도하는 것인가? 우리 학교 시스템에 있는 한 쪽만 불리하게 차이가 나는 인종적인 징계를 없애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 경찰국? 법정? 구치소와 감옥소와 강제 수용 구치소 등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는 어린이와 중고등부의 교육을 위하여, 고통 받는 공동체의 회원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실직 당하거나 아프거나 그 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할당하고 있나? 벌을 주고 감금하는 나쁜 시스템을 위해 쓰는 자금의 방향을 우리들이 바꾼다고 하면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추가로 어떤 자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까?

여러분의 대답을 서로 다같이 이야기 나누어 본다.

1 부: 우리의 역사

역사를 통하여, 여성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라고 강요 받아 왔다. “이것은 원래 그런 것이다” 혹은 “체제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라는 이유들로 이런 강요를 정당화했다. 노예 폐지론자들, 여성 참정권론자들, 그리고 시민 운동 지도자들은 변화란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들어 왔다. 고맙게도, 그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짓 우상에 저항을 하였고 그들의 거룩하고, 정의를 찾는 사역을 끈질기게 해 왔다.

여러분이 인종 정의 역사에서 탐구한 사건들을 그룹 사람들과 이야기 나눈다.

토 의:

- 이 사건은 그 시대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왜 중요한 사건이었나?
- 그 사건에서 파생된 영향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이 있나?
- 인종 정의 역사에 나온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와 어떻게 서로 교차하여 만나고 있나?

2 부: 우리의 현재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온라인에 나와있는 다음의 짧은 동영상을 본다: tinyurl.com/c68pku58. 이 동영상에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인종 정의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가자 각 사람들에게 잠시 시간을 갖고 다음에 나오는 물음에 대한 답을 조용히 적어 보라고 한다.

- 나는 왜 인종 정의에 대하여 열정적인가?
- 나의 이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믿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있나?

몇 분 동안 시간을 준 후에, 그룹의 참가자들에게 인종 정의에 대한 그들의 결의를 큰 소리로 읽기를 권한다. 그렇게 나누는 방법을 그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한다.

3 부: 우리의 미래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동 따로 분리 될 수 없게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야고보서 2:18, 표준 새 번역)

우리는 인종 정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인종 차별주의에 도전할 때에는 용기와, 단도직입적인 면과, 돌봄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인종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결단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과 공동체라는 상황 안에서 어떻게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지역에서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송수관을 방해하는 사역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후원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 안에서 인종 정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맞설 것인가? 여러분의 개체 여성교회에서는 인종 정의에 대하여 여러분의 지역 사회나 혹은 주 정부에서 지금 진행 중인 일들을 어떻게 후원 할 수 있는지의 방법들을 찾아 본다.

헌금과 마무리 | 10 분

헌금

대면으로 이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면, 이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좋다. 온라인으로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면, 참가자들에게 uwfaith.org/give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헌금 후원을 해 달라고 부탁한다.

마치기 전 묵상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여러분은 자신을 강건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인내심이 좀 더 필요한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을까? 더 친절해야 할까?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있을까? 더 많은 후원, 치유, 의지가 필요한가? 여러분이 인종 정의에 대한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일을 계속해야 하는 체력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찬양 노래

“한 발/ 사랑으로 이끄는(One Foot/Lead with Love)” - 멜라니 드모어Melanie DeMore⁵
[youtube.com/channel/UCXNHK482HVQRmSsBsTzdkmQ](https://www.youtube.com/channel/UCXNHK482HVQRmSsBsTzdkmQ)

마치는 기도문

참가자들에게 인종 정의 정책 현장에 나오는 말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음에 나오는 기도문을 다 같이 드리자고 부른다.

다같이: 우리는 믿습니다...

인도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식구라는 것을

다같이: 우리는 믿습니다...

인도자: 인종 차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같이: 우리는 믿습니다...

인도자: 인종 차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화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같이: 우리는 믿습니다...

인도자: 인종 차별은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인간됨을 빼앗아 가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정치적 착취를 하기 위한 정당성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다같이: 우리는 믿습니다...



인도자: 우리는 하나님 앞과 우리 서로의 앞에서 우리들이 다른 인종의 우리 자매와 형제들에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고 선포해야 함을

다같이: 우리는 믿습니다...

인도자: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 보통 인간들에게 있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같이: 우리는 믿습니다...

인도자: 우리의 강점은 우리들의 인종과 그리고 문화의 다양함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각 사람의 가치가 존중 되고 양육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들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같이: 우리는 믿습니다...

인도자: 정의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새로운 태도, 새로운 이해 관계,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법률 안에서, 정책에서, 체제에서, 그리고 교회와 나라 둘 다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다같이: 우리는 믿습니다...

인도자: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한 의로운 일과 각 사람과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자기의 결정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분투하기로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 합니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온라인에서 줌으로 모임을 가지면, 다음의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웹사이트인 uwfaith.org에 들어가서 “Shop and Download”에서 찾아 본다. (기도와 절제의 날 자료에 한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곳을 누르면 한국어 기도와 절제의 날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를 찾을 수 있다 - 옮긴이)

인종 정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보기: 인종 정의 현장을 복사하거나 링크를 참석자들이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나누어 준다. 회원들에게 각자가 기도하는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현장을 공부해 볼 것을 권한다. 다음 달 프로그램으로 모임 때에, 다 같이 현장에 대한 느낌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그룹과 연결하여 현장의 어느 부분이 자기들에게 울림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참석자 각 사람들은 인종 정의 현장에 대한 부르심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혹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어떻게 서로 만나고 있는가?

저자에 대하여

에밀리 존스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전국 사무실의 인종 정의 책임자이다.

말미의 주

1. 마크 에이. 밀러의 찬양 CCLI Song # 7052931 Mark A. Miller © 2015 Choristers Guild CCLI License # 11221925
2. 레베카 엡스타인, 자밀라 제이. 블랙, 그리고 탈리아 곤잘레스 Rebecca Epstein, Jamila J. Blake, and Thalia González, “소녀의 삶이 방해 받다 Girlhood Interrupted: 흑인 여자 아이들의 어린 시절 빼앗기 The Erasure of Black Girls’ Childhood,” 빈곤 그리고 불공정 중심으로 Center on Poverty and Inequality, Georgetown Law, Accessed March 25, 2022, genderjusticeandopportunity.georgetown.edu/wp-content/uploads/2020/06/girlhood-interrupted.pdf.
3. “An Overview of Exclusionary Discipline Practices in Public Schools for the 2017–18 School Year,”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accessed March 25, 2022, slide 7, 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crdc-exclusionary-school-discipline.pdf.
4. 웬디 소이어와 피터 와그너 Wendy Sawyer and Peter Wagner, “대량 감금 Mass Incarceration: 2020년의 파이 한 판 The Whole Pie 2020,” 교도소 정책 프로그램 Prison Policy Initiative, accessed March 19, 2022, prisonpolicy.org/reports/pie2020.html.
5. “한 발/ 사랑으로 이끄는 One Foot/Lead with Love.” Words & Music: Melanie DeMore. © 2016 Melanie DeMore. 무료 저작권, 비상업용. 이 찬양의 악보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www.justicechoir.org/songbook Licensed for free, non-commercial distribution through Creative Commons. Sheet music for “One Foot/Lead with Love” is available here: www.justicechoir.org/songbook/. 악보를 PDF로 무료로 내려 받지만 찬양 작곡가를 후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정의 합창 유튜브 주소는 다음과 같다: www.youtube.com/channel/UCXNHK482HVQRmSsBsTzdkmQ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디지털 자료들

**방문하여서 온라인에 디지털 형태로 되어있는 원하는 자료들을 찾아보고,
여선교회 자매들과 만나보고, 새 친구도 만들어 보세요!**

**여선교회 온라인 공동체에 가입은 무료입니다! uwfaith.mn.co에 들어가서
다른 자매들을 만나보거나 유료 자료들 가운데 하나를 구독하세요.**

uwfaith.org



연합
여선교회